

◆ 연합 한인 형제회 웹사이트 http://www.koreansfo.org ◆



평화의 도구

(제 152 호)

06년 4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울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229-091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울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wy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형제회 소식

■ 형제회 설립

4월 25일은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설립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형제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 가톨릭 워커 봉사

오는 5월 7(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한국 음식인 불고기를 제공합니다. 성 토마스 성당 오전 8시 미사 후 성당에서 출발하며 많은 봉사자 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 형제회 의무 피정

OC 형제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는 12월 형제회 의무 피정을 합니다. 회원 전원은 가능한 한 모두 참석하시기를 권장하며 선착순으로 예약금을 접수받습니다.

- 일시: 06년 12월 14일(금)-16일(일) 2박 3일
- 장소: 말리부 세라 피정의 집
- 회비: \$150 (2박 3일, 2인 1실)

■ 박 미카엘 형제 서약식

지난 4월 23일(일) OC 형제회 회장 이 병재(힐라리오)회장께서 꼴베 형제회 박관철(미카엘) 형제에게 건강상의 문제로 단독으로 서약식을 하였습니다. 서약식에는 OC 형제회 평의회원, 꼴베형제회 회원, 김영신(마르타) 수사님이 함께 참관하였습니다.

■ 형제회 합동 서약식

오는 6월 24일(일) OC 형제회, RH 성 글라라 형제회, WM 성 글라라 형제회, 꼴베 형제회 SD 성 디에고 형제회 합동으로 성 토마스 성당에서 서약 및 입회식이 있으며 또한 서약 예정자들은 서약 전에 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 RH 성 클라라 형제회 설립식

성 글라라 형제회 설립식

-일 자: 6월 4일(일) 오후 2시

-장 소: 성 마리아 한인 성당

2035 Otterbein Ave

Rowland Hts, CA 91748

부활

주님의 부활은 천지 창조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한한 생명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며,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부활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
둘째, 예수님의 부활로 죄에서 비롯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세력이 꺾이게 되었다는 것.
셋째,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과 희망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말 씀】

게 되고 자신의 계획과 가치에 맞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부활과 가난



부활 시기를 보내며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산다는 것, 곧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는 매

순간 옛 자아의 죽음과 영으로 새로이 살아가는 작은 부활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체험의 기로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느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물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음에서 이야기 하는 재물을 섬기는 삶은 한마디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은 삶을 자신이 꾸려가는 자의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원하

반대로 하느님을 섬기는 삶은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이는 나를 이끄시고 돌보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삶입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섭리에 감사하게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가리거나 그 사랑에 반하는 나의 모든 것을 떨쳐냄으로써 육적인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난이란 물질의 소유,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란치스코로서 우리가 가난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을 비워내는 작업이기 이전에 하느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가난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인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록 영글어가는 참된 기쁨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보화를 보게 될 때 자연이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영적, 육적 가난을 자기 의지만으로 이루려 하거나 자기만족 같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려 한다면 가난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섬기는 삶에서 가난은 마치 햇살 아래서 바람결 속에서 하나들 옷을 벗고 알몸이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은총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향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 돌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난해 질 때만이 가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덮개를 걷어낸 벌거벗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살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에 더욱 가난해 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론 내용[한국] 은 수련형제인 황성욱 야고보 형제가 부활 제2주간 토요일에 "가난"을 주제로 한 공동체 미사에서 한 강론 내용입니다.

【프란치스칸 러시아 선교】

부활의 기쁨안에서

T 평화와 선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와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더욱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깨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 자명한 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깝지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활의 신비를 가슴 속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면, 그 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비를 묵상해봅시다. 우리의 삶 안에서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분의 숨결을 느껴봅시다. 그 엄청난 부활의 신비를...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러시아에서 여러분의 아들 도미니코 형제

【묵상】

집착의 무게

자신의 삶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미 처해 있는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원하는 <집착의 무게>이다.

높에 빠졌을 때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면 더욱 더 빠져 들 듯이 <이미 와 있는 상황을 내 것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고달프고 힘들 수 밖에 없다.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인다.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면 자신에게 이미 있었는데도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다 좋은 일도, 다 나쁜 일도 없으며 과거의 삶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

내게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게 다가오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좋고 나쁨의 구분하는 자체가 집착의 뿌리가 된다.

【목 상】

행복과 불행

사랑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만 섭섭한 사람은 이미 불행합니다.

미운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반비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독불장군이지만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 연합군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수시로 닦고 조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행복 기술자가 되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불행의 조수가 됩니다.

아침에 ‘잘~ 잤다’ 하고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움말을 들려주는 친구를 만나면 보물을 얻은 것과 같고! 듣기 좋은 말과 잡담만 늘어놓는 친구와 만나면 보물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축복이 따르고 화내는 얼굴에는 불운이 괴물처럼 따릅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의 주주가 되고 당장 쓰기에 바쁜 사람은 불행의 주주가 됩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행복 표를 예약한 사람이고 불행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번호표를 들고있는 사람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행복 합격자가 되겠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불행한 낙제생이 됩니다.

남의 잘못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도 잘 되는 기쁨을 맛보지만 두고두고 배아파 하는 사람은 고통의 맛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취미를 가지면 삶이 즐겁지만 나쁜 취미를 가지면 늘 불행의 불씨를 안고 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은 것도 커지고, 큰것도 작아질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 속에 빠진다.

행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것이다.

